

2007세계농약시장

실질성장 3% 이뤄 작물보호제 중요성 입증

2004년 이래 처음, 라틴아메리카 가장 큰 증가세 보여

-시험부-

UK 컨설턴트 Phillips McDougall의 예상결산에 따르면, 2007년 11월 기준으로 농업분야 활기와 US달러 약세로 인하여 세계농약시장은 유통업자(도매)기준 8.4% 증가하여 385억55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작물보호제 판매는 9.1% 증가한 331억9천만달러를 기록하였고, 비작물보호제 판매는 4.2% 감소한 53억65백만달러에 이르렀다.

통화영향과 물가상승을 반영한다면, 2007

세계농약시장은 약 3% 증가한 것이며 이는 2004년 이래 처음으로 실질적인 성장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NAFTA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이 실질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믿는다. NAFTA지역의 농약매출은 달러기준으로 1.5% 상승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1.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연료의 수요증가가 옥수수 재배면적을 19% 가까이 증가시켰으나, 전형적인 농약보다는 GM작물의 농약에서 수익이 나타났다고 Phillips McDougall은 밝히고 있다.

라틴아메리카가 18.6%라는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농약 매출은 농업경제가 호전되고, 작물 재배지역이 늘어났으며, 브라질에서의 안정된 날씨조건으로 증가하였다. 브라질 화폐가 달러에 대하여 강세를 보였으며, 브라질 농민의 수입은 세계 곡물가격 상승에 의해 상쇄되었다고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다

유럽시장도 달러기준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나타냈다(실질성장 2.8%). 북유럽의 습한 여름에 이어 온화하고 습한 겨울이 곡물류에서의 농약 판매 증가를 가져왔다. 유럽 남부에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매출에 영향을 받았으며, 몇몇 동유럽 국가는 EU 회원국으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았다. 한국과 일본시장에서의 감소는 인도, 중국과 몇몇 동남아 국가에서의 농약사용량 증가로 상쇄되었고 결과적으로 아시아시장은 달러기준으로 5.1% 증가하였다. 범용제품에서 특화제품으로 이어지는 변화는 중국 농약매출을 증가시켰고, 양호한 온순 기후와 목화재배 증가가 인도의 매출증가에 기여하였다.

한국과 일본 시장은 쌀값 및 경작면적 감소에 영향을 받았으며, 호주는 가뭄의 영향을 계속 받았다.

세계 작물보호제 판매현황(백만\$)				
지역	2006	변화(%)	2007	실질성장률(%)
유럽	9,217	+13.1	10,420	+2.8
NAFTA	7,379	+1.5	7,490	-1.7
아시아	7,405	+5.1	7,780	+0.2
라틴아메리카	5,203	+18.6	6,170	+14
기타	1,221	+8.9	1,330	조사불가
총계	30,425	+9.1	33,190	+3.0

*통화와 물가상승 포함, Phillips McDougall Agriservice 참조.

예비보고서는 유럽의 포근하고 다습한 기후와 미국 옥수수에서의 사용량 증가, 브라질 시장 호전으로 살균제 매출이 증가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Glyphosate외의 제초제는 Glyphosate 저항성 작물의 확대에 인하여 계속적인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제초제는 더 높아진 Glyphosate 가격과 유럽·남미에서

의 선전으로 증가 되었다. 또한 살충제도 시장이 개선되어 이익을 냈으나, 특히 미국에서의 해충-저항성작물 재배증가로 영향을 받았다.

옥수수 재배면적의 두드러진 증가로 2007년 세계 곡물류 재배가 증가하였다. 쌀과 밀의 재배도 증가하였지만 옥수수에 비하면 증가폭이 적은 편이다. Oilseed 재배는 바이오연료의 수요로 인해 크게 늘어났고, 목화재배는 인도와 중국에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의 작물재배면적은 미국, 아프리카, 중동에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2007 세계 작물재배 면적(백만ha)		
작물면적	2006년	대비(%)
밀	216.3	+1.9
옥수수	158.5	-6.7
쌀	153.9	+0.6
콩	91.5	-2.8
지방종자	29.9	+10.4
목화	33.9	-2.5
해바라기	22.8	-4.4

* Phillips McDougall Agriservice 참조.

Phillips McDougall은 또 주요시장의 성장가능성에 기인하여 2008년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재배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EU의 제로 비축율과 더불어 밀과 평지 가격의 상승이 유럽 농약시장을 상승하게 할 전망이다. NAFTA는 높아진 콩 가격과 바이오연료의 수요가 농업경제 특히, GM작물에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 시장 역시 물가 개선으로 이익이 기대된다. Y